

日本法隆寺金堂壁畫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影響

洪 潤 植

(동국대학교)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壁畫의 內容과 그 意味 |
| II. 法隆寺와 金堂壁畫 | V. 壁畫의 年代와 作者 |
| III. 金堂壁畫의 現況과 構圖 | VI. 結 語 |

I. 序 言

古代 韓日文化交流을 論함에 있어 언제나 석연치 않은 몇가지 問題들이 오늘에 남아 傳하고 있다. 즉 그것은 古代日本文化는 高句麗 百濟 新羅 등 韓國文化의 影響이 至大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具體的 事實들이 제대로 評價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文化가 日本에 影響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先史時代 이후의 일이나¹⁾ 특히 日本의 飛鳥 奈良時代에는 佛敎文化를 中心으로 國家體系를 確立하면서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의 多方面에 걸쳐 우리 文化의 影響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²⁾

그러나 한편 이상과 같은 古代韓日文化交流에 대하여 개괄적인 通說은 尙古하면서 그 具體的 事實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 日本學界의 現實이다.³⁾

예컨대 古代日本에 佛敎를 傳한 것은 百濟의 聖王에 의해서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의 구체적 文化內容에 대해서는 言及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直接 唐나라의 影響이었다고 하게 되는 것 등이 그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⁴⁾ 물론 여기에는 事實을 證明할 만한 確實한 文獻資料가 傳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理由를 찾을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그를 기회로 古代韓國文化의 影響을 무시하려는

1) 考古學에서 論議되고 있는 靑銅器文化의 日本傳來說 등이 그와 같은 것이다.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論』

2) 『日本書記』 欽明天皇, 敏達天皇, 推古天皇條에 보이는 日本佛敎傳來關係記事 및 「元興寺緣起」.

3) 『東亞三國佛敎傳來의 再照明』, 靈鷲山佛敎文化研究院, 第一回學術會議發表要旨, 1989. 12.

4) 前揭註.

경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筆者가 國民學校때부터 中學校 시절에 걸쳐 배워온 古代韓日文化交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實들이 오늘에도 쟁쟁히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남아 있다.

- ① 百濟에서 日本에 佛教를 傳하였다.
- ② 百濟의 阿佐太子는 日本 聖德太子의 스승이 되었다.
- ③ 百濟의 王仁은 日本에 漢文을 전하였다.
- ④ 高句麗의 僧 慧慈法師는 聖德太子에게 佛教를 가르쳤다.
- ⑤ 高句麗의 曇徴이 日本 法隆寺의 金堂壁畫를 그렸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事實들을 日本의 學生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마침 20여년 전에 日本에 유학할 기회가 있어 머무는 동안 國民학생, 중학생, 많은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前記한 사실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물어 보았으나 日本의 聖德太子는 하나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나 聖德太子와 관계된 韓國관계 人士나 文化에 대해서는 전연 모르고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같은 事實을 놓고 韓日 兩國學生들의 認識의 차이가 그렇게도 큰 것인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事實에 대한 의문은 그 이후 언제나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그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法隆寺 金堂壁畫는 과연 高句麗의 曇徴이 그린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法隆寺의 金堂壁畫에 대한 日人學者들에 의한 論著는 수없이 많이 發表되어 왔다.⁵⁾ 그러나 이들 수 많은 研究論著中에서도 앞에서 말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 學界에서도 이 分野에 대한 문제만 提起하여 왔지 지금까지 이렇다할 具體的 研究가 이룩되지 않고 있었으나 多幸히도 最近 安輝潛教授의 「三國時代 繪畫의 日本傳播」라는 刻苦의 論文이 發表되어 法隆寺의 壁畫뿐 아니라 당시 高句麗 百濟 新羅의 영향으로 생각되는 오늘에 傳하는 日本 古代繪畫에 대한 具體的 論究가 있어 이 分野의 研究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⁶⁾ 筆者는 法隆寺 金堂壁畫에 대한 古代韓國의인 영향을 重點的으로 살피려 하는 바이지만 마침 安教授의 前記한 研究가 있어 힘입은 바 큰 것임을 序頭에 밝혀둔다.

II. 法隆寺와 金堂壁畫

法隆寺의 金堂壁畫에 대한 來歷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피고자 한다면 먼저 法隆寺의 來歷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日本에 佛教가 百濟로부터 公傳된 것은 6세기 中葉 欽明朝의 일이라 하나 그 年代에 대해서는

5) 安輝潛教授가 「三國時代 繪畫의 日本傳播」 1989, 국사편찬위원회 『國史館論叢』10 에서 관계 研究論著를 상세히 밝히고 있어 이를 참고로 하였다.

6) 前掲註.

異說이 있다. 즉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는 戊午年の 538年이라 하고⁷⁾ 日本書記에서는 爲政者が 佛敎을 公式으로 採用한 것은 欽明13年(552)이라 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⁸⁾

한편 法隆寺는 원래 聖德太子의 願利이었던 斑鳩寺가 670년의 火災로 소실되자 法隆寺로서 再建되었다고 하고, 法隆寺라는 寺名制定은 天武 8年(679)의 일이나⁹⁾ 이같은 法隆이라는 寺名制定을 계기로 하여 日本佛法 興隆의 歷史上 最初로 佛法을 일으켰다고 하는 飛鳥寺와 더불어 法隆寺는 佛法을 興隆함에 影響이 있었던 由緒깊은 寺院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런데 당시 日本 飛鳥朝廷의 佛敎受容은 단순히 佛敎信仰의 수용 뿐 아니라 그에 따른 建築을 비롯한 彫刻 繪畫 工藝 天文 舞踊 등 諸領域에서의 先進佛敎文化的 導入에 의하여 새로운 國際情勢에 대응하려 하였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후의 百濟 佛敎文化는 百濟情勢에 밝았던 蘇我氏를 中心으로 造寺 造佛活動이 進行되고 있었는데 敏達6年(577)에는 百濟의 威德王(554-598)이 비로소 僧侶와 造寺 造佛工 6人을 보내 왔다고 하고 同13年(584)에는 鹿深臣등에 의하여 百濟에서 彌勒石像이 請來되어 佛殿이 지어지고, 다시 그 다음해인 敏達14年(585)에 日本에 있어 最初의 記念碑라 할 수 있는 佛塔이 세워졌다.¹⁰⁾

그런데 이 佛塔에는 뒤에 法隆寺 金堂의 釋迦三尊像을 만든 止利佛師의 祖父 鞍部村主司馬達等이 얻어서 馬子에게 獻上하였다고 傳해지는 佛舍利가 奉安되어졌으나 守屋의 火災 때 佛殿과 함께 燒失되었다고 한다.¹¹⁾

이상과 같은 經營背景을 지닌 法隆寺의 創建年代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法隆寺草創의 由來나 寺寶 등을 기록한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및 聖德太子의 事蹟을 기록한 「上宮聖德法王帝說」에는 日本書記가 기록하고 있는 聖德太子의 法華 勝曼經講說과 水田施入의 件을 戊午年(推古6年 598)의 일이라 하고 있어 日本書記의 記載와 8年の 차이가 나는데 法隆寺 草創에 대한 아무런 言及을 하지 않고 있어 이상의 資料로서 法隆寺의 前身인 斑鳩寺의 創健年代를 밝힐 수는 없으나 斑鳩寺가 法隆寺의 前身이었음을 前記文獻에 의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創建年代에 대해서는 推古6年(598)에서 14年(606) 사이에 建立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같이 法隆寺의 創建年代는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으나 623년에는 金堂이 存在하였음이 확실하므로 7세기초에는 이미 創建되어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은 本來의 法隆寺인 斑鳩寺는 670년의 火災로 燒失되고 이어 바로 法隆寺의 寺名으로 現存 法隆寺가 再建된 것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法隆寺의 再建에 대하여 日本學界에서는 再建論者와 非再建論者 사이에 뜨거운

7) 飛鳥寺草創의 由來나 寺寶 등을 기록한 古文書.

8) 『日本書記』 欽明13年條.

9)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및 「上宮聖德法王帝說」 『聖德太子全書』3·5:日本の古代美術 3. 『法隆寺』 III 美術 保育寺 등 참조.

10) 『日本書記』 敏達天皇 6年 13年條.

11) 前掲註 10).

論爭이 일고 있었다.¹²⁾

그러나 1890년 이래 약 반세기에 걸친 法隆寺의 再建 非再建論에 대한 是非는 1926년의 塔址發掘과 1939년에 실시된 若草伽藍의 발굴을 통하여 法隆寺는 본래의 위치를 多少 옮겨 再建된 것이란 再建論者들의 主張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¹³⁾

그리고 再建年代에 관해서도 天武年間(673-686)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說과 持統年間(687-696)에 이루어졌다는 說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늦어도 711년까지는 金堂 五層塔 中門 등이 完成되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¹⁴⁾

이밖에 再建法隆寺를 둘러싼 의문은 여러 가지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 中에도 再建計劃 등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 등이 法隆寺의 來歷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나 여기서는 다만 이제 法隆寺의 金堂만을 注目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本稿에서 注目하고자 하는 것은 金堂의 壁畫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法隆寺의 金堂은 여러 가지 엇갈린 主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세기 후반에는 이미 지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7세기 후반에 再建된 金堂은 修理中 1949년 1월26일 화재가 발생하여 內陣 윗쪽 小壁에 그려진 飛天像 등을 除外하고는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하여 이전의 金堂壁畫는 火災前에 찍어 놓은 寫眞資料에 의하여 살필 수 밖에 없게 된다.

Ⅲ. 金堂壁畫의 現況과 構圖

現在 金堂의 外陣이나 內陣의 벽에는 흰 바탕에 彩色의 如來像 菩薩像 飛天像 등이 묘사되어 있어 이 部分만이 밝게 보인다. 그러나 이들 壁畫들은 內陣上方의 小壁에 描寫된 것들을 除外하면 모두가 1949년 1월 26일 火災로 燒失된 것을 1968년에 再現한 것들이다.

火災로 燒損되었다고는 하나 이들 舊壁畫는 重要文化財로 指定되어 現在 大寶藏殿 北方의 收藏庫에 불탄 金堂의 기둥과 함께 옛날 원상의 配置대로 保存되어 있고 우리들이 언제나 美術全集 등에서 볼 수 있는 壁畫의 原色圖版은 燒失以前에 撮影한 것들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金堂壁畫를 研究하고자 할 때에는 構圖 등은 再現壁畫에서 살피고 原色圖版은 燒失前에 촬영해 놓았던 寫眞資料에 의거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먼저 再現壁畫와 舊壁畫의 配置圖(圖 1)를 참고로 하여 壁畫의 構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12) 法隆寺의 非再建論은 平子釋嶺, 關野貞, 足立康 등 建築이나 美術樣式研究의 學者들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喜田貞吉을 비롯한 再建論者들과의 사이에 一大論爭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足立康, 『法隆寺再建非再建論爭史』, 龍吟社.

13) 前掲註.

14) 安輝濬, 「三國時代繪畫의 日本傳播」, 『國史館論叢』10·국사편찬위원회 1989.

金堂은 外陣과 內陣으로 區分 되는데¹⁵⁾ 外陣의 東西北의 各壁面에 설치된 大壁四面(1, 6, 9, 10號壁)에 釋迦·阿彌陀·藥師·彌勒의 4佛淨土를 描寫하고 4隅에 各 2面씩 있는 中壁8面(2, 3, 4, 5, 7, 8, 11, 12號壁)에는 菩薩의 單獨像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外陣上部에 있는 小壁18面과 內陣上方 小壁 20面에는 山中羅漢과 飛天像 등을 描寫하고 있다. 이들 大壁 中壁에는 便宜上 整理番號를 붙이고 있는데 東西의 大壁을 號壁으로 하여 이하 南西北으로 右廻하면서 6, 9, 10의 번호를 붙이고 있다.¹⁶⁾

그러면 우선 이들 大壁과 中壁壁畫의 構圖가 어떤 것인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1) 1號壁畫 (314.9×256cm)(圖 2)

1號壁畫의 壁畫는 如來坐像을 中心으로 하여 그 左右에 二位의 菩薩像과 各五位의 10大弟子像(僧形像)을 配置한 構圖를 지니고 있다. 中央의 如來像은 오른손은 올려 施無畏印을 結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 얹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의 前方에는 香燈과 두 마리의 獅子가 描寫되어 있다. 上方에는 天蓋와 그 좌우에 飛天像 2位가 묘사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中央의 如來像을 中心으로하여 左右에 12位의 群像을 配置하는 13尊形式의 構圖는 9號壁과 10號壁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이같은 形式은 4大壁畫의 典型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10大弟子像이 描寫되고 있어 中央의 如來像을 釋迦如來로 해석하고 따라서 이 벽화의 전체적인 명칭을 釋迦淨土圖라 하고 있다.

(2) 6號壁畫(圖 3) <사진 4>

6號壁은 西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단 阿彌陀淨土圖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¹⁷⁾

中央의 阿彌陀如來를 中心으로 그 左右에 觀音菩薩과 勢至菩薩이 配列되어 있고 上方天蓋의 左右에 化佛群(供養像)그리고 下方에는 蓮華化生の 往生人으로 보이는 群像이 描寫되고 있어¹⁸⁾ 阿彌陀淨土圖로서의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그림에 있어 兩菩薩像은 印度의인 官能美와 唐風の 理想美를 잘 나타내고 있어 注目되는 바라 하겠으나 鐵線描라 일컬어지는 輪郭線과 濃淡의 配色에 의하여 像에 立體感을 나타내게 하는 獨特한 技法에 더욱 效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日本의 佛殿은 佛像이 奉安된 佛壇과 그에 儀式을 담당하는 儀式僧이 儀式을 行하는 場所로서의 內陣과 그 外方空間으로서 나누어 진다.

16) 金堂內의 壁畫配置圖參照『法隆寺』Ⅲ, 美術 保育社.

17) 阿彌陀佛은 西方極樂世界의 主佛로 認識되고 있기 때문이다. 『阿彌陀經』에 여기로부터 西方으로 몇 萬億 佛土를 지나 西方極樂世界가 있으니 여기서 阿彌陀佛은 現今에도 說法을 계속하고 있다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18) 阿彌陀佛의 信仰人은 蓮華化生하여 西方極樂世界에 往生한다고 함이 그것이다. 『淨土三部經』참조

(3) 9號壁畫(圖 4) <사진 5>

9號壁畫는 4大壁畫中 剝落이 가장 심하여 확실하지 않는 部分이 많으나 中央의 如來像은 6角의 臺座위에 結跏趺坐하고 있으며 左右에 各6位씩 12位의 尊像을 配置하고 있음은 1號壁畫의 構圖와 같다.

12位의 尊像은 2位의 脇侍菩薩과 2位의 弟子像 8位의 神衆像으로 構成되어 있다. 神衆像 8位는 八部神將像으로 생각된다.¹⁹⁾ 中央의 如來像은 釋迦와 彌勒의 兩說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그림은 彌勒淨土圖로 알려져 있다.²⁰⁾

上方에는 天蓋와 그 左右에 飛天像이 描寫되어 있고 下方에는 香燈과 獅子 2마리가 묘사되어 있다.

(4) 10號壁畫(圖 5)

中央의 如來像은 兩足を 내려뜨려 臺座에 앉아 있는 倚像을 나타내고 있다. 그 左右에는 脇侍菩薩像 2位 佛弟子像 2位 神衆像 8位로 된 13尊形式을 취하고 있다. 神衆像 8位 중 最前方의 2位는 金剛力士像으로 보이며 2位는 大梵·帝釋의 天部像으로 보이며²¹⁾ 나머지 4位는 8部金剛중의 4位가 아닌가 한다.²²⁾

中央의 如來像은 왼손에 寶珠와 같은 것을 들고 있어 藥師如來로 비정하고 이 그림을 藥師淨土圖라 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의 神衆像은 藥師神將像일 것이라 하겠으나 우리 佛畫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²³⁾

한편 이 그림의 如來像은 法隆寺塔本塑像南面の 彌勒과 같은 倚像이므로 彌勒일 것이라는 엇갈린 見解가 있기도 하다.²⁴⁾

(5) 中壁의 壁畫

中壁의 壁畫는 4大壁의 4隅에 2面씩 8面으로 되어 있는데 菩薩의 獨像을 描寫하고 있다.

北壁의 8號와 11號壁에는 文殊菩薩(圖 6)과 普賢菩薩像(圖 7)을 坐像으로 묘사하고 그 옆에 位置하는 7號와 12號壁에는 觀音像과(圖 8) 11面觀音像(圖 9)을 描寫하고 있다 한편 南의 5號와 2號에는 思惟像의 菩薩像(圖 10-①·②)을 그리고 南壁의 兩端에 위치하는 4號와 3號壁에는 阿彌陀

19) 朝鮮時代 佛畫에서 보면 8部の 神衆은 8部神將像이 많고 간혹 8部金剛像이 있게 되는 用例를 찾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 佐和隆研, 「法隆寺金堂壁畫の造成」, 『佛教美術』3.
內藤藤一郎, 「法隆寺壁畫四佛淨土變考」, 『東洋美術』9.

21) 朝鮮時代 佛畫에서 諸菩薩像과 같이 배열되는 보살형의 合掌한 大梵·帝釋像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22) 눈과 보관의 모습이 조선시대 佛畫의 8部金剛像과 유사 하다.

23) 現存 藥師圖의 경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24) 日本의 古寺美術, 『法隆寺』Ⅲ, p.170 美術保育社.

의 脇待로 잘 등장하는 勢至菩薩(圖 11)과 觀音菩薩의 立像을 描寫하고 있다.

(6) 内外陣 小壁의 壁畫

金堂外陣의 上方의 小壁 18面에는 애당초 山, 바위, 樹木 등을 배경으로 한 山中羅漢像이 描寫되어 있었으나 이들 壁畫도 近世의 修作으로 5面을 改彩하고 있으며²⁵⁾ 나머지 13面도 1949년의 火災時 소실되고 現在에는 1號壁 上方에 位置하고 있는 것의 寫眞과 原位置 不明의 描寫品 2점이 지난 날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²⁶⁾ 다만 堂內 4둘레의 側壁上部 天井 가까이 山岳의 遠景을 描寫하고 羅漢像을 배치한 構圖를 나타내고 있으며 內陣의 上方 小壁 20面에도 같은 粉本으로 그려졌다고 생각되는 飛天像이 描寫되었다. 이들 飛天像은 1949年 火災時에 다행히 불타지 않고 남은 部分이며²⁷⁾ 모두가 다 2위가 같이 空中을 나는 모습으로 표현 되어지고 왼손에 華盤을 들고 散華供養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팔목에 걸친 天衣나 瑞雲은 後方에 曲線을 나타내면서 연결시켜 畫面에 움직임과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들 20面의 飛天像은 모두가 空中을 비스듬히 오른쪽 아래로 飛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內陣의 須彌壇上에 安置된 本尊에 대하여 右繞禮拜하는 構成으로 되어 있다.

IV. 壁畫의 內容과 그 意味

앞에서 4大壁의 壁畫는 釋迦·阿彌陀·藥師·彌勒등의 4大淨土를 表現한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들 벽화의 內容에 대한 日本學界의 說은 구구하다. 그것은 이들 벽화에 대한 오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明治時代 이후 이들 벽화에 대한 갖가지 잇갈린 解釋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하였기 때문이다.²⁸⁾

天平 19(747)년의 「法隆寺伽藍緣起併流記資財帳」에는 壁畫에 관한 記錄이 전연 없으나 嘉承元年(1106)에 쓰여졌다고 하는 「七大寺日記」에 이르러 이들 벽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²⁹⁾ 이들 記錄에서도 東西의 壁에 대해서는 藥師淨土, 阿彌陀淨土라 하고 있고 北쪽의 2面에 대해서는 여러 佛菩薩의 그림이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그 主題의 內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4面의 壁畫 全部에 대하여 그 主題의 內容을 밝히고 있는 文獻資料는 僧 顯信의 「太子傳私記」가 傳하는 바³⁰⁾에 의하면 「西壁은 阿彌陀淨土, 東壁은 寶生淨利, 北의 東脇의 壁에 藥師利土, 西脇

25) 前掲書.

26) 前掲書.

27) 前掲書.

28) 前掲書.

29) 藤田經世編, 『七大寺巡禮私記』, 校刊美術史料 寺院篇 上, 中央公論美術出版.

30) 『大日本佛教全書』聖德太子傳叢書, 佛書刊行會.

의 벽에 釋迦國土라 하고 있다. 그 외의 벽에는 菩薩의 立像을 묘사하고 있으며 기둥위에는 深山에 羅漢이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坐像으로 1間에 左右 1位씩 묘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文獻資料에 의한 解釋이 明治時代 以前까지는 支配的이었으나 東壁의 寶生淨利(寶生如來의 淨土)은 그 教主인 寶生如來가 密敎에 의한 5佛의 하나라는 點에서 金堂壁畫가 애당초 그려진 당시의 日本에는 密敎가 受容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부정적인 立場을 取하게 되면서 4面淨土에 대한 구구한 說이 쏟아져 나와 4大壁 壁畫의 主題는 더욱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大正時代에 접어들면 4面佛에 대한 근거를 經典內容에서 찾아 이들 벽화 主題를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 즉 金光明經에 說하고 있는 4方4佛說이 瀧精一에 의하여 提起되었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 하겠는데³¹⁾ 金光明經에 의한 4方4佛이란 教主 釋迦를 中心한 四方 現在四佛을 지칭 하는 것으로 阿閼佛 阿彌陀佛 寶相佛 微妙聲佛의 4方佛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瀧氏에 의한 金光明經의 4方說은 이들 4大壁畫를 판단 하는데 별다른 說得力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시 異論이 提起되었다. 즉 4方佛을 金光明經등의 어떤 特定한 經典에서 求하지 아니하고 日本에서 實際로 行해지고 있는 塔本四方四佛의 實例를 文獻에서 찾아 4大壁을 그 4佛淨土에 해당 시키고 있는데 福井利吉郎의 4方4佛說이 그와 같은 것이다.³²⁾

이는 光明皇后의 發願으로(730) 建立된 興福寺 五寺에 관한 古記錄에 塔의 層4面에 4佛의 淨土를 나타내는 群像이 安置되어 있는데 그 主尊은 東面이 藥師佛, 南面이 釋迦佛, 西面이 阿彌陀佛, 北面이 彌勒佛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元興寺五層塔이나 四天王寺의 塔에도 이와 같은 4方4佛이 설치되어 있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확실히 日本 白鳳期에서 天平期の 佛像의 造像例는 釋迦 藥師 阿彌陀 彌勒의 4佛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阿彌陀는 西方極樂淨土 藥師는 東方瑠璃光淨土의 教主로 되어 있으며 彌勒과 釋迦는 일찍부터 阿彌陀나 藥師보다 日本에서 널리 조성 信仰되어져 있던 佛像이다.³³⁾

그리하여 당시의 日本에서 이상과 같은 釋迦·阿彌陀·藥師·彌勒의 4方4佛의 틀이 成立되고 있었다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문이 제기된 것은 金堂의 構造는 南面の 中央3間에 門이 설치 되어 있어 東西南北의 各面에 4大壁을 1面씩 配置 할 수 없게 되어 東과 西에 各1面, 北에 門을 끼고 2面을 설치 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4佛이 어떤 壁面에 해당 되는가가 문제되기 시작 하여 엇갈린 諸說이 나오게 되었다³⁴⁾

31) 瀧精一 「法隆寺 金堂壁畫に就いて」『國華』 315, 316

32) 福井利吉郎「法隆寺壁畫」の主題に就いて『建築雜誌』362, 363

33) 百濟에서 日本에 佛敎를 전할 때 傳해진 佛像이 釋迦像과 彌勒像이 었다는 點이 이를 일러주고 있다. 日本書紀 6年 13年 14年條 欽明2年條

34) 水野清一, 「飛鳥白鳳佛の 系譜」, 福井利吉郎「法隆寺壁畫の主題に就いて」, 瀧精一, 「法隆寺 金堂壁畫に就いて」 源豊宗, 「法隆寺の壁畫」內藤藤一郎의 說이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재에는 壁面을 오른쪽으로 돌아 東面 第1號壁은 釋迦淨土, 北面 東方10號壁 藥師淨土, 北面 第6號壁은 阿彌陀 淨土로 하는 源豐宗, 內藤藤一郎의 說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³⁵⁾ 다만 諸說이 一致하는 6號壁의 阿彌陀淨土와 1號壁의 釋迦淨土에 대해서는 圖像學的인 面에서도 쉽게 理解되어지나 9·10號壁에 관해서는 圖像學的으로 分明하지 않다는 點을 들어 엇갈린 見解를 나타내기도 한다.³⁶⁾

V. 壁畫의 年代와 作者

이상에서는 주로 日本學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法隆寺 金堂壁畫에 대한 諸說을 中心으로 壁畫의 現況과 構圖, 主題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제 이상에서 파악된 壁畫의 內容에 대한 諸說과 樣式的인 面 등을 壁畫가 지니고 있는 각종 歷史的 背景까지 아울러 綜合的으로 생각하면서 本稿에서 主要한 課題로 삼고 있는 年代와 作者問題 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는 몇가지 方法論이 예상되나 우선 主題問題, 樣式問題 등을 古代 韓國의 佛敎藝術에 대한 諸問題와 比較 考察함에 의하여 과연 法隆寺의 金堂壁畫가 高句麗 曇徵에 의하여 그려졌는지 아니면 적어도 古代 韓國의 佛敎美術의 影響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선 口傳으로 이 壁畫는 曇徵이 그렸다고 傳해져 온 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었기 때문이라 前提하고 다만 그를 實證的으로 證明할 만한 確실한 文獻資料가 없기 때문에 木살 되어 왔던 事實들을 다른 傍證자료에 의하여 比較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主題問題

먼저 이 壁畫에서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注目 되는 것은 4方4面이라고 하는 主題問題이다. 韓國史에 있어 4方4面佛思想이 일찍이 受容되었음은 三國遺事의 記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竹嶺 동쪽 백리가량 되는 곳에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眞平王9年 甲申 (587)에 홀연히 四面 方丈의 큰 돌에 四方如來를 새기고 紅紗로 싼 것이 하늘에서 그 山頭에 떨어졌다. 王이 듣고 기기에 가서 쳐다보고 경례한 후 드디어 그 바위 곁에 절을 짓고 額號를 大乘寺라 하고 蓮經을 외우는 중을 請하여 이 절을 맡게하고 정히 쓸고 돌을 供養하며 供石香火를 끊이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 산을 刑德山이라 하고 四佛山이라고도 한다.」

35) 前揭註 24).

36) 前揭註(34).

하고 있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³⁷⁾ 이같은 기사는 韓國佛敎의 受容樣式과 관계하여 注目되어 온 記事이지만³⁸⁾ 여기 4方4面佛思想이 수용되고 있어 더욱 注目을 끌게 한다. 한편 이어서 다시 三國遺事에서는 같은 條에서³⁹⁾

「景德王(742-764)이 栢栗寺에 行차하여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念佛하는소리가 들리므로 사람을 시켜 파보니 큰 돌이 있는데 사면에 4方佛이 새겨져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절을 짓고 절이름을 掘佛寺라 하였는데 지금은 잘못 전해져 掘石寺라 한다」

하여 역시 4面佛의 기사를 남기고 있다. 이 記事도 佛敎受容의 樣式 및 佛像觀念의 변화를 일러 주는 記事로 注目되어 왔을 뿐 아니라⁴⁰⁾ 年前 發掘調査에 의하여 掘佛寺 4面佛(사진 1-①·②)의 存在가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⁴¹⁾

前述한 大乘寺의 4面佛 記事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4面佛이 大乘寺 뒷산 山中턱 自然岩石의 4面に 조각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4面佛에 대하여 金光明經에 의한 東方 妙喜國의 阿閼佛, 南方 歡喜國의 寶生佛, 西方 極樂國의 阿彌陀佛, 北方 蓮華莊嚴國의 微妙聲佛로 해석 하기도 하나 掘佛寺址 등에서 發見·確認된 4面佛은 東方藥師, 西方阿彌陀, 北方彌勒, 南方釋迦 등이었고 한편 百濟佛로 알려진 忠南禮山에서 發見된 4面佛도 같은 4面佛의 형식으로 確認되고 있다.⁴²⁾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佛敎受容의 樣式이 4面佛思想에 의거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4面佛은 東의藥師, 西의阿彌陀, 北의彌勒, 南의釋迦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4面的 4佛은 셋트로 造成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따로 따로 造成 되기도 하였다고 짐작 된다. 즉 佛敎受容초기에 造成된 如來像은 釋迦·彌勒·藥師·阿彌陀 以外的 佛像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佛敎受容의 樣式이 4面佛이었고 이같은 4面佛은 셋트로 信仰 되기도 하고 따로 따로 信仰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에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佛敎受容 樣式으로서의 4面佛思想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4面佛信仰 및 4如來에 대한 信仰은 7세기에 이르기까지 中國·韓國·日本의 共通的인 佛敎受容樣式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7) 『三國遺事』 塔像第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38) 『三國遺事』의 塔像條는 韓國佛敎 受容의 樣式을 잘 傳해 주고 있는 것으로 注目되고 있는데 그 受容樣式이 四面佛思想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洪潤植 「三國遺事와 塔像」 『佛敎學報』 17집·1980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39) 『三國遺事』 塔像第四 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40) 前揭註 (38)

41) 金理那 「慶州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震檀學報』 39. 趙由典·朴永福 「百濟四面石佛 발굴보고」 『文化財』 제16호.

42) 朴永福 「百濟四面石佛 調査 및 發掘報告」, 『文化財』 16號.

즉 中國에 있어서도 佛教信仰의 歷史를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佛像이라는 이름으로 造成하여 特定한 名稱을 붙이지 않는 상태에서 釋迦信仰이 계속되다가 北魏以後 唐代에 이르는 사이에 釋迦·藥師·彌勒·阿彌陀의 4佛信仰이 성행하고 있었음이 그를 일러주고 있는 바라 하겠는데⁴³⁾ 三國遺事에서 傳하고 있는 4面佛信仰은 中國에서 막연하게 佛像이라는 이름으로 特定の 名稱없이 釋迦信仰이 계속되던 단계의 信仰形態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4面佛을 셋트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後世가 되면 다른 思想體系와 더불어 4面佛體系가 形成된 것이라 믿으나 적어도 三國遺事の 4面佛記事에 의하여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法隆寺의 金堂壁畫가 4方4面佛을 그 主題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中國에서의 영향보다는 당시 日本佛教受容의 歷史의 背景에서 考慮할때 韓國에서의 영향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이를 다시 高句麗 曇徽의 作이라 보는 傳說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前述한 三國遺事の 4方4面佛과 실제 오늘에 傳하는 4方4面佛들은 모두가 新羅나 百濟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新羅佛教가 高句麗로 부터 수용되었고 다른 한편 당시 三國에서의 佛教受容의 樣式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高句麗 曇徽作일 可能性은 배제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시 다른 接近方法을 通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小壁의 主題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이들 小壁의 그림은 대체로 菩薩像 飛天像 羅漢像들이었다고 하였지만 이들은 오늘에 傳하는 韓國寺院에 있어 丹青別畫내지 小壁의 그림들과 너무나 같은 것들이어서 注目을 끌게 한다(사진3). 물론 이들 그림들은 모두가 朝鮮時代 것들이며 그것도 朝鮮時代中期를 상회하는 것이 없어 이 시대의 것과 6~7세기의 法隆寺壁畫와 比較考察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하겠으나, 다른 한편 佛教繪畫라는 것은 時代에 따라 細部的인 面에서 樣式의 변천이 있어 왔고 그 描寫技法의 差異 등이 있어 왔으나 主題 構成 등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예로 오늘의 韓國寺院內部에 설치된 壁畫 등의 諸佛畫의 主題나 構成 등이 6-7세기경에 이룩된 敦煌壁畫의 그것들과 그 主題·構成 등에 있어서 너무나 類似性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松本榮一은 敦煌壁畫의 構成에 대하여

「中央의 넓은 須彌壇을 中心으로 周圍의 壁畫에 四佛淨土八種の菩薩들을 배치하고 그 上方의 小壁에는 山中羅漢圖를 그리고 內陣의 上方에는 飛天圖를 描寫하고 있다」

고 하고 있는데⁴⁴⁾ 이와 같은 敦煌벽화의 構成은 오늘날의 韓國寺院에 있어 佛堂內部的 各種繪畫 構成과 흡사한 데가 있다. 즉 韓國佛堂의 內部를 보면 中央의 佛壇(須彌壇)에 關係佛像이 奉安되고 그 뒷면에 後佛壁畫라 하여 四佛淨土·八菩薩圖가 配置되며 上方의 天井이나 小壁 등에 丹青別畫 또는 壁畫라 하며 菩薩像·山中羅漢像·飛天像 등을 描寫하는 것 등이 그와 같은 것이라 하겠

43) 佐和隆研, 「法隆寺金堂壁畫의 構成」 『佛教藝術』 3.

44) 松本榮一, 『敦煌壁畫의 研究』

다. 그 외에 오늘의 韓國佛堂에는 佛壇을 中心하여 左右壁에 神衆幀畫·七星幀畫·山神幀畫 등을 설치하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며 洞窟벽화에서 金剛力士 등의 守護神을 배치하는 것에서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洞窟의 벽화, 法隆寺 金堂의 壁畫가 오늘에 傳하는 韓國寺院의 佛堂內部에 설치된 佛畫와 그 構成面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4面佛을 배치함에 있어 東西南北의 各壁面에 정확하게 4面佛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든가 또는 전혀 그 方位를 무시한 채 한 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 등의 차이를 남기고 있으나 이는 木造建築의 構造에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었다든가 아니면 方位에 대한 관념을 무시하면서 생긴 배치법이라 생각하면 基本的으로는 같은 것이라 하여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날에 傳하는 韓國寺院에 있어 佛堂의 그림은 小壁을 除外하고는 壁畫가 아닌 幀畫란 點이다. 이것은 모르기는 하지만 원래는 壁畫였던 것이 후세에 幀畫로 그려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幀畫가 아닌 壁畫로 後佛幀畫를 그리고 있는 作例가 있을 뿐 아니라⁴⁵⁾ 지난날의 文獻資料에서도 佛堂內部의 그림은 幀畫로서 보다는 壁畫로 그렸다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면 이상과 같이 中國이나 韓國 日本 등의 佛堂內部의 佛畫에서 共通點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혹 어떤 經典上의 敎理的 內容에 바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겠으나 十誦律 등의 小乘 經典 등에는 오히려 繪畫가 있는 場所에 出入 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으며,⁴⁷⁾ 初期大乘시대에 이르면 摩訶僧祇律 卷第三十八에 「吉利王爲佛起塔 四面作龕 土作獅子像 種種彩畫」라 하고 있으며,⁴⁸⁾ 또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 第15에 의하면

「給孤長者創造此寺 施佛僧已 所有障壁未爲彩畫 便作是念 我今請佛欲畫僧寺 至禮佛足退居一面白言 大德寺牆未畫 我今欲畫佛言隨意」라 하고 있음에서 보면⁴⁹⁾ 原始佛教時代에서 初期大乘佛教時代에 있어서도 佛教의 建築에 있어 塔이나 절의 壁 등에 彩畫가 行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한다든가 하는 敎理的 근거는 역시 前述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 第 17에⁵⁰⁾

「給孤長者祈園之後作如是念 若不彩畫便不端嚴 佛若許者我欲裝飾 即往白佛 佛言隨意當畫 聞佛轉已 集諸彩色并喚畫工 此是彩色可畫寺中 答曰從何處作欲畫何物 報言我亦不知 當往問佛 佛言長者 於門兩頰應作執杖藥叉 次傍一面作大神通變 又於一面畫作五趣生死之輪 簷下畫作本生事 佛殿門傍畫持鬘藥叉 於講堂處畫老宿苾芻宣揚法要 於食堂處畫持餅藥叉 於庫門傍畫執寶藥叉 安水堂處畫

45) 禪雲寺 大雄寶殿의 경우 後佛幀畫가 아닌 後佛壁畫로 하고 있음이 그와 같은 것이다.

46) 『三國遺事』 興輪寺壁畫普賢條 등

47) 「十誦律卷」第45『大正藏經』第20卷 p. 322.

48) 『大正大藏經』第22卷 pp496-7.

49) 『大正大藏經』第24卷 p272.

50) 前掲書 p283

龍水瓶著妙瓔珞 浴室火堂依天使經法式畫之 并畫小多地獄變 於瞻病堂畫如來像躬自看病 大小行處 畫作屍變形容可畏 若於方內應畫 白骨髑髏 是時長者從佛聞已禮足而去」

라하여 여기서 보면 各各 佛宇의 門 入口 左右에는 守護神으로서 그 場所에 適應한 藥叉像을 描寫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大神通變·五趣生死輪·本生譚·老宿苾經宣揚法要之圖·地獄變·如來像躬自看病 등의 그림을 描寫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당시의 佛畫는 建造物이 使用되는 用處에 따라 그에 알맞는 主題에 의한 그림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主題는 佛畫로서는 상당한 發展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經典은 唐의 義淨三藏에 의하여 漢譯 된 것이며 그 成立年代는 기원후 2·3世紀頃이라고 하는 바⁵¹⁾ 이에 의하면 기원후 2·3세기경에는 이미 佛教建造物을 장식하는 것으로서의 佛畫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보면 初期 大乘佛教時代에 있어 小乘系統의 佛畫의 發展은 守護神과 같은 單獨像을 그린 例도 있지만 그 보다는 복잡한 說話內容을 圖說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作例가 大乘佛教時代가 되면 淨土思想의 發展과 더불어 各種 淨土圖를 발전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거를 大乘經典上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고⁵²⁾ 진술한 바와 같이 中國 韓國 日本의 大乘佛教가 전파된 佛教圈에서 共通의으로 發見 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法隆寺 金堂壁畫의 主題가 6·7세기경에 이룩된 敦煌壁畫와 共通의인 要素를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 당시 古代韓國에 있어 高句麗 百濟 新羅의 壁畫가 오늘에 傳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三國時代에도 中國 日本 등에서 제작되고 있었던 것과 같은 主題에 의한 壁畫가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라 推察된다.⁵³⁾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法隆寺 壁畫의 근원을 唐에서만 찾으려는 日本學界의 傾向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日本은 아직도 唐에서 보다는 古代 韓國文化의 影響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⁵⁴⁾

즉 이 壁畫의 主題에 의한 接近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時代에서 구할 수 있다는 당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51) 『望月佛教大辭典』義淨三藏條

52) 小乘經典上에는 佛教繪畫와 관계되는 記事가 보이지만 大乘佛教經典上에는 發見되지 않고 있다.

53) 『三國遺事』 등에서 三國時代에 法堂內部에 壁畫를 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당시 佛教藝術의 주된 主題는 釋迦 阿彌陀 藥師 彌勒 등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4) 法隆寺의 經營이 활발한 時代는 당시 日本이 高句麗 百濟 新羅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는 法隆寺壁畫에 대한 日本學者들의 研究 傾向은 이 壁畫가 지니고 있는 外部의인 要素를 西域의 要素, 印度의 要素 등에서만 求하고 있고 韓國의인 要素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文化交流의 상황에서 보면 이 壁畫가 비록 印度의, 西域의 要素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高句麗 百濟 新羅 등의 三國文化를 통하여 受容하게 되었던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2) 年代問題

이 壁畫의 製作年代 問題는 그 作者가 高句麗의 曇徵이었느냐 하는 問題와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어서 이 壁畫의 解明에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먼저 曇徵과 法隆寺는 어떤 關係에 있는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韓國사람이면 누구나 法隆寺의 金堂壁畫는 曇徵이 그렸다고 하는 그 曇徵이 日本에 건너간 것은 AD 610년 (고구려 嬰陽王21年)의 일이며 이는 日本 推古天皇 18年에 해당된다.⁵⁵⁾ 이때의 曇徵은 日本書記에 의하면 五經을 알고 있었고 또한 彩色 및 紙墨을 만들 수 있으며 碾硯를 만들었는데 대저 碾硯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하고 있다.⁵⁶⁾

이같은 記事만으로는 曇徵이 法隆寺의 壁畫를 그린 사람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으나 彩色 및 紙墨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可能性은 충분히 인정 되는 바라 하겠다.⁵⁷⁾ 그러나 曇徵이 日本에 건너간 이후 60년 뒤인 670년에 法隆寺의 重要建物は 火災를 만났다고 하니 불타기 前의 法隆寺의 壁畫를 曇徵이 그렸다고 하더라도 1949년의 火災때 불타버린 壁畫는 曇徵이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再建 法隆寺가 火災以前(670) 法隆寺의 重要部分을 復元하고 있었다면 壁畫도 以前壁畫를 다시 옮겨 그렸을 可能性은 充分히 인정되는 바라 하겠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949년의 火災時에 불타버린 壁畫도 그 作者가 曇徵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曇徵의 영향 또는 당시 高句麗 百濟 新羅壁畫의 影響이었다고 하여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⁵⁸⁾ 특히 7세기에는 高句麗系의 黃文畫師, 山背畫師 등의 畫師氏族集團이 百濟系 河內畫師氏族과 함께 日本 繪畫界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韓國繪畫와의 關係를 전연 무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하겠으며⁵⁹⁾ 따라서 이 壁畫의 始源年代는 670년에 法隆寺가 불타기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壁畫가 古代 韓國系 畫家들에 의한 그림이거나 그 影響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壁畫가 한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하여 그려졌다는 데서도 짐작되는 바라 하겠다. 즉 이 벽화 중에서 東方의 藥師淨土와 西方의 阿彌佉淨土는 百濟系의 止利佛子筆이라 傳해지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 하겠는데⁶⁰⁾ 止利는 百濟系의 人物로 日本佛像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 人物이었다.

止利는 584년에서 606년에 걸쳐 飛鳥大佛의 造立 등에 참여하였던 百濟佛工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만⁶¹⁾ 이 止利는 止利式佛像이라 指稱할만큼 독특한 樣式의 佛像을 남겨 당시 日本

55) 『日本書記』推古18年條.

56) 前掲書.

57) 安輝潛「三國時代繪畫의 日本傳播」『國史館論叢』10 國사편찬위원회 1989.

58) 前掲論文.

59) 前掲書.

60) ①小林剛「司馬鞍首止利佛師」『美術史』29.

②水野敬三郎「釋迦三尊と止利佛師」『奈郎の寺』岩波書店.

61) 前掲書.

佛敎美術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었다고 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止利式樣式이란 것이 中國風이 아닌 百濟樣式의 影響을 크게 입고 있었다는데 注目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前述한 法隆寺의 三壁畫에 止利가 그 제작의 一部에 參與 하였다는 事實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學界의 法隆寺 壁畫에 대한 研究는 東洋美術史上의 壁畫라는 立場과 日本美術史上의 立場이라는 두 立場을 取하면서 前者에 대해서는 法隆寺의 壁畫에 얼마만한 對外的인 影響이 있었던가를 究明해 왔던 것이라 하겠으나⁶²⁾ 이 경우 法隆寺의 壁畫가 印度 아잔타 洞窟의 그림들에 比較되고 敦煌壁畫 등에 比較되면서 印度的 西域的 畫風의 影響임을 말하게 되나⁶³⁾ 古代 韓國의 影響이 있었음을 추호도 말하지 않고 있음은 웬 일일까. 물론 여기에는 그와 관련된 확실한 文獻資料가 없을 뿐 아니라 同壁畫와 比較할 만한 繪畫的 資料가 없다는 데 起因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 主題에 있어서나 당시 文化交流의 事情 등에 있어서는 일단 韓國과의 交流관계에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비록 오늘에 傳하는 法隆寺 壁畫에 比較될 만한 당시의 韓國그림이 오늘에 傳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6·7세기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하는 天壽國曼荼羅繡帳, 玉虫廚子, 高松塚壁畫 雙樹飛天圖와 狩獵圖, 聖德太子及二王子像 등의 古代 日本의 繪畫資料가 韓國의인 影響에서 이룩된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⁶⁴⁾ 法隆寺의 壁畫도 일단 그 연원을 古代 韓國繪畫에서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⁶⁵⁾

이들 法隆寺壁畫에 描寫 되어진 佛 菩薩의 풍만한 姿態나 긴 눈썹, 두터운 입술, 佛身에 휘감은 얇은 衣文, 唐草文이나 連珠文 등의 장식문양 등은 西域과 中國의 兩要素를 인정하게 되나 繪畫에 있어 西域的 要素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에서 이미 일찌기 나타나고 있으므로⁶⁶⁾ 法隆寺壁畫의 西域的 要素는 오히려 高句麗繪畫의 影響이라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法隆寺 金堂의 건축 양식이나 건축과정에서 使用된 高麗尺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⁶⁷⁾

다른 한편 이 金堂壁畫는 佛 菩薩이 갖는 持物의 透明感의 表現, 飛天의 天衣表現 등에서 主體的 自然描寫가 발달하고 있어 이 점이 注目 되고 이와 같은 畫風은 唐代美術의 影響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지만 이같은 唐風의 影響 역시 韓半島를 經유하여 전래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日本學界의 法隆寺美術에 대한 一般的인 見解는 일단 初期 日本佛敎美術은 古代韓國人에 의하여 造成 되었거나 아니면 그 指導下에서 이룩된 것이라 하여 고대 한국적인 影響을 수긍

62) 小林太市郎「法隆寺金堂壁畫の研究」『佛敎藝術』3. 등 多樣的 金堂壁畫關係論文이 모두 그러하다.

63) 前掲書

64) 安輝濬「三國時代繪畫의 日本傳播」『國史館論叢』10. 1989.

65) 前掲書.

66) 前掲論文.

67) 「法隆寺의 尺度問題」, 『佛敎美術』 4.

하면서도⁶⁸⁾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韓國的인 영향은 배제된 채 곧바로 印度的인 要素와 中國的인 要素와를 結合 시키고 있다. 金堂壁畫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壁畫에 대한 日本學界의 研究業績은 古代 韓國的인 영향이 배제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몇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 된다. 즉 法隆寺壁畫의 外部的인 영향임을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은 오히려 韓國的인 영향이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 止利佛師의 作風과 金堂壁畫의 문제

止利佛師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止利式佛像이라 일컬어지는 독특한 佛像樣式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人物이다.⁶⁹⁾ 이 같은 止利佛師가 法隆寺의 金堂壁畫製作에 참여 하였을 可能性에 대해서는 이미 前述한 바 있지만 止利佛師가 어느나라 사람이었을까 한 데 대해서는 中國에서 來朝한 漢人이란 說과⁷⁰⁾ 韓半島에서 건너간 百濟系사람이었다는 說이 엇갈리고 있어⁷¹⁾ 止利佛師가 實사 金堂壁畫의 제작에 참여 하였다 하더라도 金堂壁畫의 韓國的인 影響이 說得力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日本書記가 傳하고 있는 鹿深臣 등에 의한 百濟請來의 彌勒石像 등을 둘러싼 祖父 司馬達 等の 活躍⁷²⁾ 善信尼 等の 百濟留學 등을 考慮 한다면⁷³⁾ 止利佛師의 百濟人說이 오히려 說得力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金堂壁畫의 百濟的인 影響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四面佛의 問題와 金堂壁畫

法隆寺 金堂四大壁의 壁畫主題가 4方4佛 곧 4面佛思想이 基礎를 이루고 있다고 함은 前述한 바이나 이 問題에 대해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學界에서는 주로 4方4佛의 配置문제에만 置重하여 왔고 그 연원을 찾음에 있어 막연하게 中國과의 관계만을 主張하고 있으나 6~7세기에 걸쳐 古代韓國에서 流行하고 있던 4方4佛의 作例를 考慮에 넣고 본다면 法隆寺 金堂壁畫의 主題는 오히려 古代韓國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⁷⁴⁾

68) 「佛敎가 朝鮮半島를 거쳐 日本에 傳來된 것은 6세기 前半의 일이며 朝鮮半島에서는 佛像이 계속하여 수입되고 또는 僧侶나 造佛工·瓦工·畫工·等の 技術者가 日本에 渡來하여 그들 自身의 손으로 아니면 그들의 指導下에 절이 세워지고 佛像이 만들어졌다」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西川杏太郎 「法隆寺의 美術」 『法隆寺』三 シルクロード佛敎文化展 등

69) 法隆寺 釋迦三尊 金堂의 藥師像 등이 止利佛師의 作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독특한 樣式이 注目 되고 있다. 藤澤一夫, 「所謂止利佛師と元興寺造佛について」 『古文化』1-1

70) 日本의 佛敎史書인 『扶桑略記』에 의하면 止利佛師의 祖父 司馬達 等は 522년 中國에서 來朝한 漢人이라고 있다. 新訂增補 『國史大系』 吉川弘文館

71) 같은 『扶桑略記』에는 司馬達 等の 아들 多須奈를 「百濟佛工鞍部多須奈」 라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72) 『日本書記』 敏達13年條

73) 『日本書記』 崇峻元年條

74) 『三國遺事』 四佛山 條 등의 기록에 의하면 6세기경에 이미 4面佛思想이 流行하고 있었고 오늘에 傳하는 四面佛의 作例에서 보면 禮山花田里의 百濟四面石佛이 6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慶州掘佛寺址의 四面

셋째, 樣式 및 年代問題와 金堂壁畫

壁畫에 描寫된 菩薩의 풍만한 자태, 두터운 입술, 얇은 天衣, 唐草文, 連珠文 등의 장식문양의 技法은 西域的 要素와 中國的인 兩要素를 살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 金堂壁畫가 西域的 要素나 技法을 受容하여 그를 中國的 樣式속에 融合한 初唐美術의 흐름을 受容하여 이룩 한 것이라 하고 있음이 일본학계의 일반적인 見解이다. 그리하여 壁畫의 創作年代에 대하여서도 佛菩薩의 着衣文樣이 初唐期이전의 樣式이라 하며 第7次遣唐使가 歸朝한 704년 이전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편 金堂內陣 天井에 描寫된 蓮華唐草가 金堂壁畫의 것과 흡사 하여 壁畫의 製作은 693년 이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⁷⁵⁾

이상과 같이 壁畫의 製作年代를 7세기까지 끌어 올리면서도 그 異國的 要素를 당시 文化交流가 가장 빈번 하였던 古代 韓國(高句麗 百濟 新羅)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7-8세기에 있어 日本 遣唐使의 派遣이 新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事實과⁷⁶⁾ 繪畫에 있어 西域要素는 이미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면 金堂壁畫의 西域的 要素와 中國的 要素는 古代 韓半島를 經유하여 日本에 傳來된 것이라 봄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VI. 結 語

오늘에 傳하는 法隆寺 金堂의 壁畫는 1949년 1월 26일 金堂修理中 火災로 因하여 內陣 윗쪽 小壁의 一部 飛天像 등을 除外하면 모두가 불타버려 火災以前에 찍어 놓은 寫眞資料 등에 의하여 다시 再現한 壁畫이다.

火災以前의 壁畫는 오랫동안 保存되어 왔으나 이 또한 670년 오늘의 法隆寺以前의 法隆寺가 火災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法隆寺壁畫가 아니다. 따라서 670년 이후 再建된 法隆寺의 壁畫는 高句麗의 曇微에 의하여 그려졌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曇微이 渡日하여 日本에서 활약한 時期는 610년 이후이므로 설사 670년 화재이전의 法隆寺의 壁畫를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670년 화재시 불타버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670년 후 再建法隆寺의 壁畫가 全然 古代 韓國의 영향을 배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7세기 후반에 걸친 日本의 文化交流關係는 古代 韓國과의 관계가 主流를 이루고 있

石佛이 7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밖의 7세기경의 陵只塔基에서 확인된 四方配置와 慶州南山塔谷의 四方佛岩 등이 三國時代 以來 統一신라 시대에 걸쳐 四面佛思想에 의한 四面佛의 造形이 크게 流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① 金理那「慶州掘佛寺止의 四面石佛에 대하여」『震壇學報』39

② 趙由典·朴永福「百濟四面石佛發掘報告」『文化財』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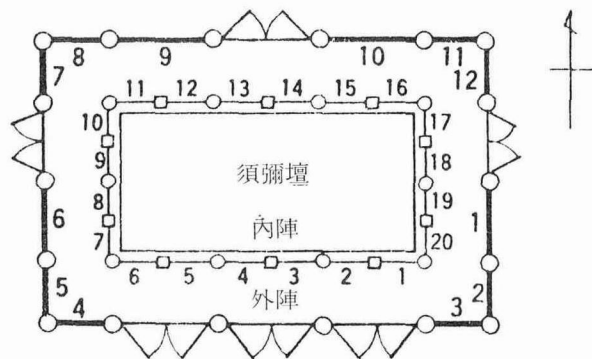
③ 黃壽永·金吉雄, 『慶州南山塔谷의 四方佛巖』通度寺聖寶博物館

75) 日本の古寺美術3 『法隆寺』Ⅲ 美術保育社 pp178-9

76) 慈覺大師 『入唐求法巡禮行記』東海書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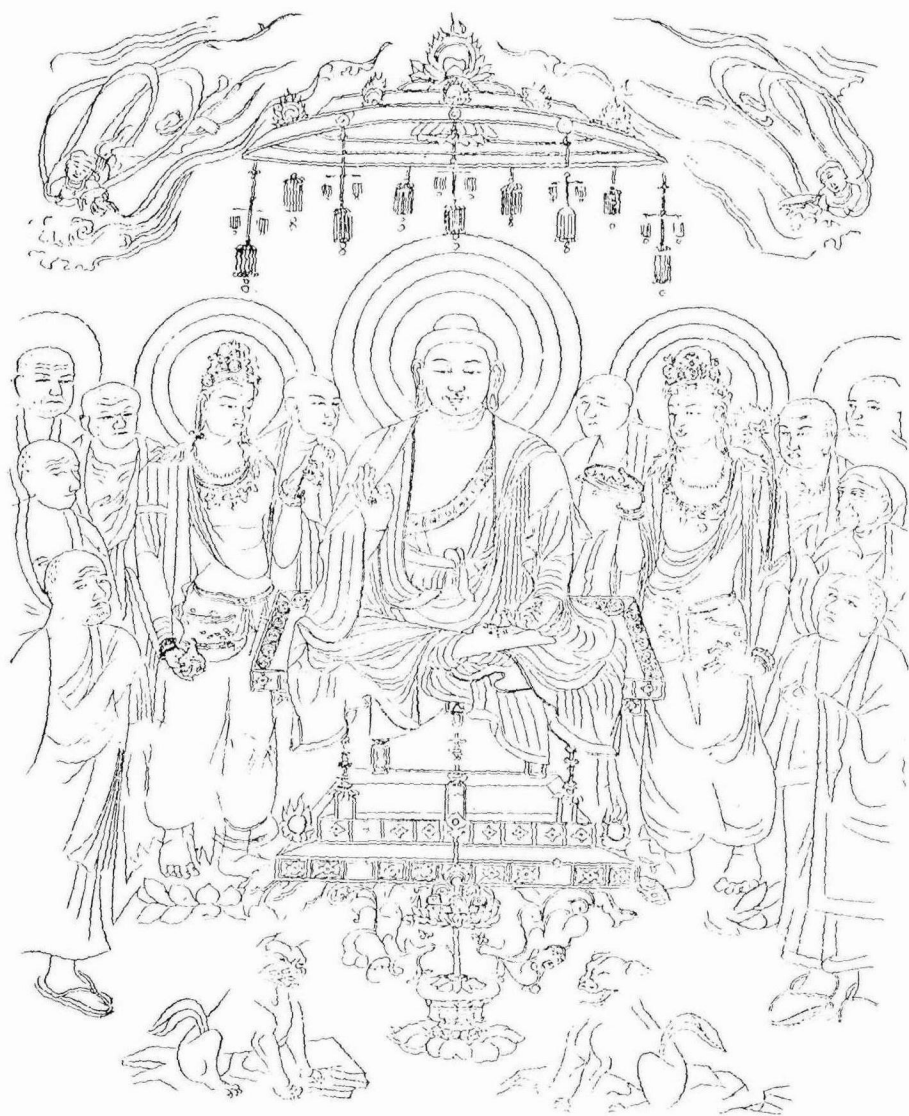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同壁畫의 樣式에서 西域的 中國的 要素가 發見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古代 韓國을 通하여 傳하여졌을 可能性이 더욱 큰 것이라 하겠다. 더더욱이 시기를 前後하여 日本에는 古代 韓國人의 渡來集團에 의하여 형성된 畫師集團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하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同壁畫의 主題가 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4方4面佛의 作例는 일찍부터 古代 韓國에 流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中國의인 影響이라 하기보다 韓國의 영향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보면 1949년 화재이전 法隆寺의 壁畫는 高句麗의 曇微이 그린 것은 아니지만 古代 韓國佛畫의 영향이 큰 것이었거나 아니면 古代 韓國人 畫師에 의하여 그려졌던지 그 指導를 받아 이룩 될 수 있었던 可能性이 충분히 推察되어지는 바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670년 화재이전 法隆寺의 壁畫는 曇微이 그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再建法隆寺의 복원에 高麗尺 등이 사용되는 등 高句麗의인 要素가 發見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70년 이후 再建法隆寺의 壁畫도 火災以前 壁畫의 樣式과 手法을 많이 受容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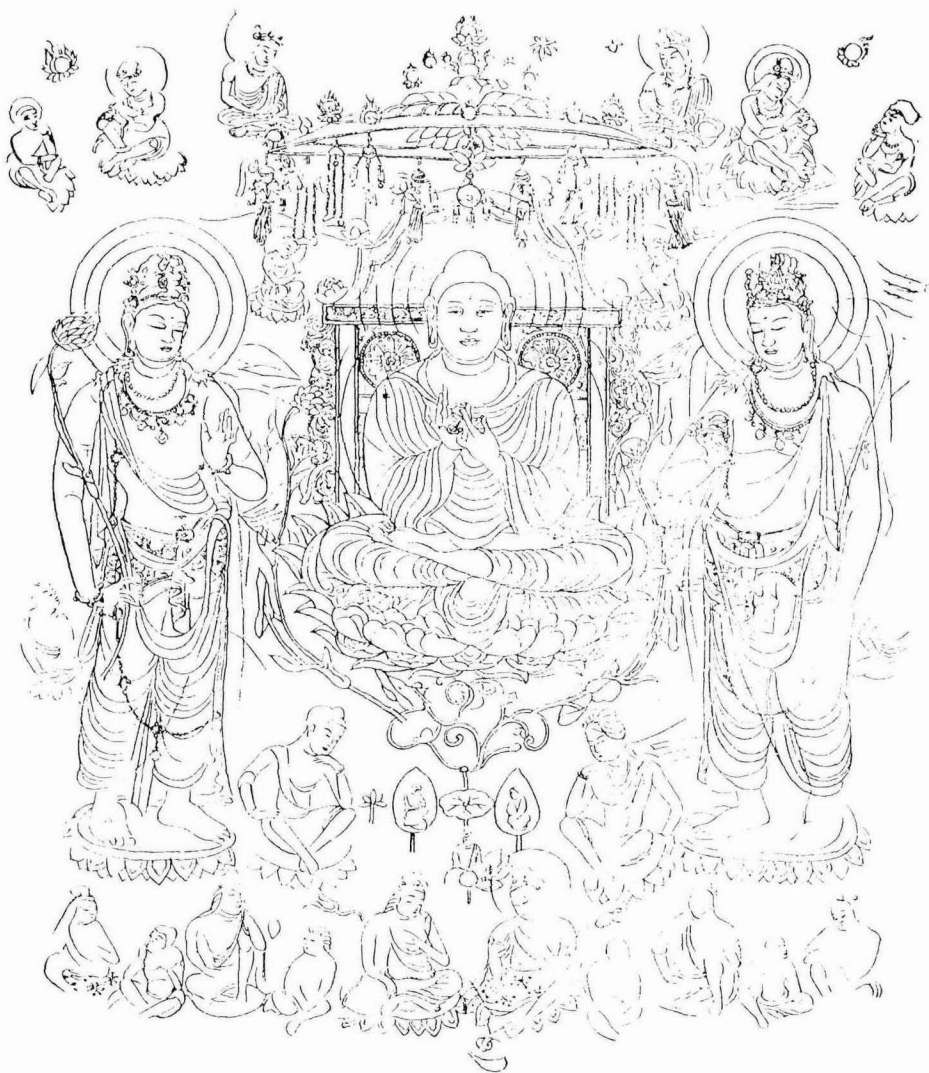


- | | |
|----------------|--------------------|
| 1 一號壁 (釋迦淨土圖) | 7 七號壁 (聖觀音菩薩像) |
| 2 二號壁 (菩薩半跏像) | 8 八號壁 (文殊菩薩像) |
| 3 三號壁 (觀音菩薩像) | 9 九號壁 (張勒淨土圖) |
| 4 四號壁 (勢至菩薩像) | 10 十號壁 (藥師淨土圖) |
| 5 五號壁 (菩薩半跏像) | 11 十一號壁 (普賢菩薩像) |
| 6 六號壁 (阿張陀淨土圖) | 12 十二號壁 (十一面觀音菩薩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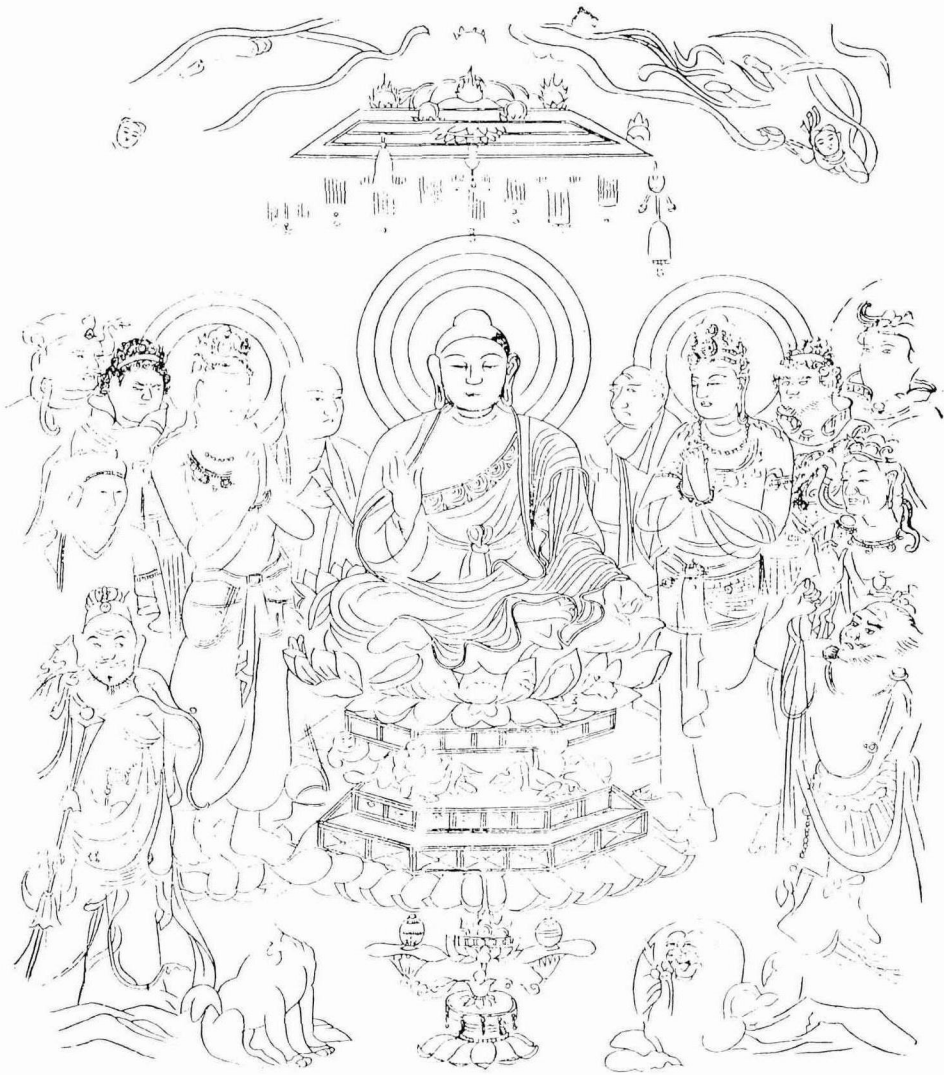
〈圖 1〉 法隆寺金堂壁畫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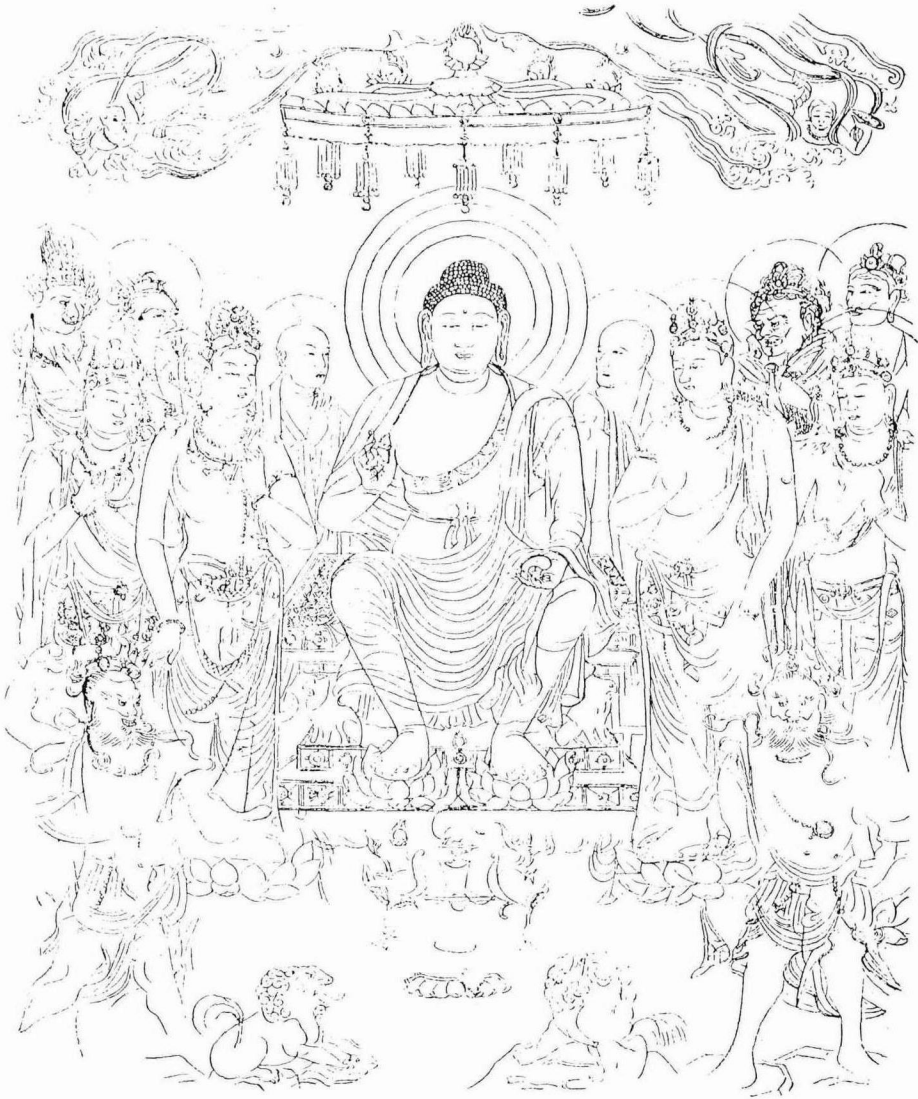
〈圖 2〉 第一號壁 釋迦淨土



〈圖 3〉 第六號壁 阿彌陀淨土



〈圖 4〉 第九號壁 彌勒淨土



〈圖 5〉 第十號壁 藥師淨土



〈圖 6〉 第八號壁 文殊菩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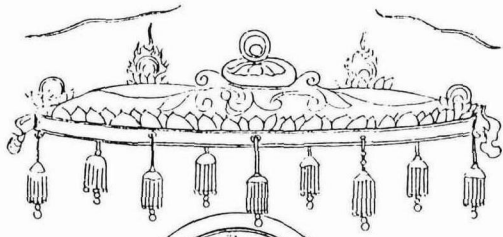
〈圖 7〉 第十一號壁 普賢菩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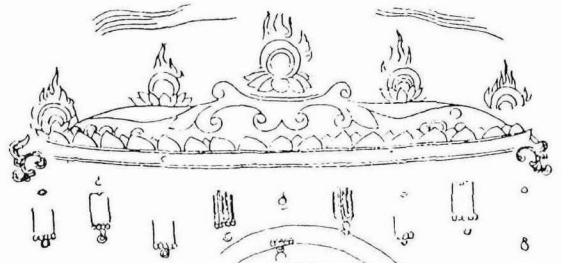
〈圖 8〉 第七號壁 觀音菩薩



〈圖 9〉 第十二號壁 十一面觀音菩薩



〈圖 10-1〉 第二號壁 日光菩薩



〈圖 10-2〉 第五號壁 月光菩薩



〈圖 11〉 第四號壁 勢至菩薩



〈圖 12〉 第三號壁 觀音菩薩



〈사진 1-①〉掘佛寺四面佛가운데
西面の 阿彌陀三尊

〈사진 1-②〉掘佛寺 四面佛 가운데
西面(向左)과(向右)의 모습



〈사진2-①〉慶州南山塔谷의 四面佛
의 南面 전경



〈사진 2-②〉慶州南山塔谷의 四面佛의 南面의 세부

〈사진 3〉韓國 寺院建物の 浦壁에 보이는 그림



〈사진 4〉日本 法隆寺 金堂壁畫中 제6호벽의 阿彌陀淨土圖



〈사진 5〉日本法隆寺 金堂壁畫中 제9호벽의 彌勒淨